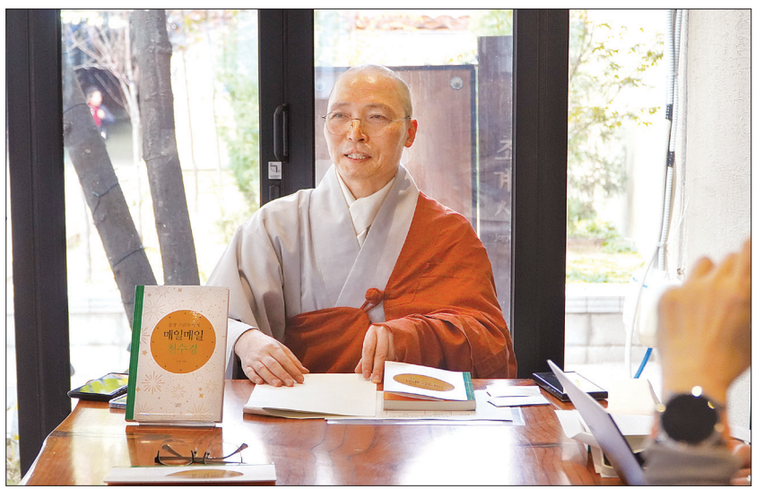
“천수경에 행복 비결 있다”



매일매일 천수경
동명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1만 8000원



불광교육원장 동명 스님은 11월 4일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매일 〈천수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하루 한 번, 매일매일 꾸준히 마음공부로 완성하는 수행법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의 대표적인 다섯가지 수행법인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이 망라돼 있는 〈천수경〉은 주술적 의미의 밀교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에 기도와 예불의 의식문을 곁들인 독특한 구조의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이자 불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장 동명 스님이 〈천수경〉에 담긴 깊은 뜻을 불자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매일 그 뜻을 음미하며 기도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천수경〉을 출간했다.

동명 스님은 불자들이 〈천수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실천해야 일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나아가 인생이 바뀐다고 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천수경〉을 독송하고 진언에 담긴 의미를 헤아리며 그 가르침대로 공부해 나가면 어느 순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 스님이 “〈천수경〉에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 성공하는 길,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고 단언하는 이유다.

〈매일매일 천수경〉은 여느 ‘해설서’와 결이 다르다.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경전의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천수경〉이 제시하는 행복의 비결과 마음공부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천수경〉의 역사적·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마지막 9장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해지기 위한 열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집약해 제시한다. 그 방법은 ‘긍정적인 말하기’, ‘부처님·보살님께 귀의하기’, ‘분명한 원을 세우고 간절히 원하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기’, ‘참회하기’ 등 불자라면 매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책 말미에는 ‘조계종 종단 표준본’과 ‘광덕 큰스님 번역본’의 〈우리말 천수경〉, 〈한문 천수경〉을 수록해 원하는 대로 골라 독송할 수 있도록 했다.

동명 스님은 2010년 지홍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해 사미계를 받았다. 현재 불광교육원장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로 활동하고 있다. 1989년 계간 〈문학과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후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해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20여 년간 활동했다. 1994년 제13회 김수영문학상을 받았으며 출가 후에도 활발한 집필활동을 이어 가며 2022년 제13회 대원불교 문화상을 수상했다.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역사 속 한국비구니〉

〈정원예찬〉 등 ‘올해의 불서 10’ 11월 25일 시상식…독자상 2인도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펴낸 〈역사 속 한국비구니〉(전영숙 집필, 민족사)가 제2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윤창화)는 11월 5일 ‘2025년 올해의 불서 10 및 제22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 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26개 출판사에서 도서 90종을 접수했다.

심사 결과 우수상은 〈정원예찬〉(현진 스님 지음, 담앤북스)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목경찬 지음, 불광출판사)이 수상했다. 한길번역상은 〈유식이십론〉(강형철·유리·구미숙 역주, 씨아이알), 붓다북학술상은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한지연 지음,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보덕전법상은 〈붓다의 수첩·담마〉(성찬 스님 지음, 수류산방)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선에는 〈거룩한 불편〉(유정길 지음, 모과나무), 〈바위에 새긴 미소〉(문영숙 글, 김태현 그림, 현암주니어), 〈일단 앉아볼까요〉(페마 초드론 지음, 한문화),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리타 그로스 지음, 운주사)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5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대상에 1000만원(출판사·저자 각 500만원), 우수상에 400만원(출판사·저자 각 200만원), 한길번역상은 올해부터 상금이 늘어난 400만원(출판사·저자 각 200만원),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후원하는 붓다북학술상과 보덕학회가 후원하는 보덕전법상은 각 200만원(출판사·저자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올해부터 ‘독자상’을 신설해 불서를 사랑하고 읽고 전하는 일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및 단체를 선정해 2명에게 각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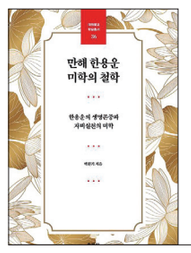
2025 세종도서에 불교 관련 15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세종도서’에 불교 관련 서적 15종이 선정됐다.

교양부문에서는 〈명상맛집〉 〈불교를 알면 삶이 자유롭다〉 〈주역의 눈〉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 〈나의 해파리 소년〉(이상 불광출판사), 〈선으로 읽는 도덕경〉(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불교윤리학 입문〉(운주사), 〈나의 스승 일엽 스님〉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인류학〉(이상 민족사),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조계종출판사), 〈바다를 건넌 붓다〉(소명출판)이 선정됐다.

학술서로는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소명출판),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불교철학의 이해〉(씨아이알), 〈한국의 불상: 통일신라편〉(경인문화사)이 이름을 올렸다.

만해, 자비로 세상을 밝히다



만해 한용운 미학의 철학
백원기 지음
운주사
2만2000원

생명존중과 자비실천의 미학 조명 “미학적인 삶은 가장 자기다운 삶” 교육·포교 매진 백원기 교수 유작



한국 근대사의 거대한 지성,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 독립운동가나 시인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스님의 사상과 삶을 담아내기 어렵다.

〈만해 한용운 미학의 철학〉은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미학’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해석한 책이다. 저자인 고 백원기 교수〈사진〉는 스님의 불교적 실천과 문학, 그리고 근대적 사유가 어떻게 ‘생명존중과 자비의 미학’으로 통합되는지를 추적한다.

저자는 만해 스님의 삶을 ‘창조적 저항의 미학’으로 해석한다. 스님에게는 모든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사랑과 평화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화두였고, 이것이 곧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상실과 아픔을 치유하고자 끝까지 노력한 ‘미학적 삶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과 같고, 평화가 없는 세상은 지옥과 같다”는 스님의 외침은 불교적 자각과 독립운동의 명분을 연결하는 근간이 됐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미학적인 삶은 가장 자기다운 삶’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이어 초반부에는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피고, 중반부에서는 〈님의 침묵〉의 문학적 상징 세계를 깊이 파고든다.

만해 스님에게 ‘님’은 조국이자 불성(佛性)이자 진리의 이름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상징이다. 스님의 시 속에서 꽃과 나무, 침묵과 바람은 현실의 고통과 초월적 진리를 동시에 품는다. 저자는 이러한 상징이 불교의 연기론과 화엄 사상, 그리고 서정적 초월의 미학이 만나는 자리임을 보여 준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심우송(尋牛頌)’과 ‘십우도(十牛圖)’에 대한 해석이다. 저자는 만해 스님이 소 찾기의 은유를 통해 자기 탐구와 깨달음의 길을 그리고, 이를 민족 현실의 극복과 연결했다고 본다. ‘심우’는 잃어버린 자아와 민족의 혼을 동시에 되찾는 서사였고, 이 과정에서 만해의 시 세계는 현실을 넘어서 초월의 미학, 즉 ‘무한한 자유의 세계’를 노래한다.

후반부에서는 스리랑카의 불교개혁가 다르마팔라와 만해를 비교함으로써 만해 사상의 국제적 보편성을 탐색한다. 두 사람 모두 식민 현실 속에서 불교를 근대적 사상으로 재해석하고, 민족 해방과 인간 해방의 길을 모색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만해 사상이 인류 보편의 평화와 연대를 지향하는 ‘불교적 미학의 세계화’를 예시했다고 본다.

저자는 “동체대비의 생명존중과 자유와 평등 기반의 깊은 불교적 사유에서 형성된 만해의 삶과 문학작품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고 해방된 미래를 지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반목, 전쟁 등 오늘날의 불안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인식과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과 자기다운 삶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의미를 짚었다.

저자인 백원기 교수는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어 교사를 거쳐 동국대 전산원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다.

용인불교학생회와 반야회를 창립하고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장을 맡는 등 포교에도 앞장섰다. 퇴직 후 후학을 지도하다 올해 4월 별세했다. 〈자연 관조와 명상, 시가 되다〉 등 20여 권을 출간했으며 이 책이 고인의 유작이다.

여수령 기자

